

모하비사막서 펼쳐진 NTC 한미 연합훈련



국방광장

김만준
육군기계화학교 전술교육단 소령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8월 우리는 미국 모하비사막으로 향했다. 섭씨 45도가 넘는 뜨거운 기온과 살을 찌르는 듯한 태양 아래서 미 육군 3기병연대와 우리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강습중대, 기계화보병중대가 함께 한미 연합훈련을 했다. 훈련장인 미 국립훈련센터(NTC)는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300배 크기로 여단급 기계화부대가 전개해 자유기동훈련·실사격훈련 등을 할 수 있다. 육군은 미 육군 부대의 전투 수행 모습을 관찰하고 전훈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발전시킬 사항들을 도출하고자 지상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각 병과학교 등에서 병과·부대 유형별 16명의 관찰통제관을 파견했다. 현지에서 훈련 준비기간을 포함해 약 한 달간 미 육군 여단급 기계화부대의 전투 수행 모습을 밀접 관찰한 결과를 기초로 우리 육군의 미래 부대 구조 및 전투 수행에서 발전시켜야 할 과제를 도출해 봤다.

첫째, 제병협동 예행연습 방법 및 시기를 구체화해야 한다. 미군은 제병협동 예행연습을 정례화해 내실 있게 실시한다. 제대별 작전계획과 전투 수행 기능의 동시 통합을 위해 대형 지도를 바다에 놓고 지휘관과 참모가 그 위를 함께 걸으며 락드릴(Rock Drill) 형식으로 진행, 공통의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우리 군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위계임으로 방책 분석을 하지만 작전 준비 중 제병협동 예행연습 방법·시기가 구체화돼 있지 않아 중요성이 간과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

둘째, 전투부상차처치(TCCC)를 위한 대대급의 무요원과 장비 확충이 절실하다. 미군 대대는 전투부상차처치가 가능한 의무소대가 편성돼 있다. 의무소대에는 군의관·의사보조장교·의무부사관·의무병 등 약 30명이 편성돼 있고, 의무후송 장갑차가 8대 편성돼 중대별로 1대씩 배속한 뒤 4대는 대대에서 운용한다. 우리 군은 전투현장에서 전투부상차처치를 위한 인원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대대 기준 의무반은 군의관 포함 5~7명, 전투용 앰블런스 1대가 전부다. 따라서 대대급 의무요원과 의무후송 차량을 확충해야 한다. 대대 의무반을 소대로 증편하고 후송 차량 편성이 있어야 한다. 통상 2개 중대가 전방에서 전투하므로 대대에는 최소 3대의 의무후송 차량이 필요하다.

물론 미군과 한국군의 능력은 많은 차이가 있고, 단기간 내에 우리 군이 미군과 같은 능력을 보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양한 전투를 통해 얻은 교훈을 토대로 지속 발전시킨 미군의 부대 구조와 전투 수행 개념·방법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되 명확한 목표를 갖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본 지면에 게재된 글들은 본지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국방일보

발행인 채일 편집인 기국간

1964년 11월 16일 창간(일간) | 2010년 7월 1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337 | 인쇄인 장대환

독자관리 발송문의(구독신청 주소변경) 02-2079-3851~2 | 팩스 02-757-9309
인터넷 kookbang.dema.mil.kr | 04353 서울시 용산구 두텁바위로 54-99

편집팀	편집 02-2079-3770-85 교열 02-2079-3791-4	군947-3770-85 군947-3791-4
취재팀	취재 02-2079-3730-42 사진 02-2079-3760-3	군947-3730-42 군947-3760-3
디지털콘텐츠팀	02-2079-3710-4	군947-3710-4
광고문의	02-2079-3124	군947-312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운 아티초크를 곁들인...

조명탄

안영주
작사가



막상 실물을 보면 그리 특별할 건 없지만 괜히 메뉴판에 쓰인 이름 때문에 더 기대하게 되는 식재료들이 있다. 내겐 아티초크가 그랬다. 혼자 쓸데없이 만약 카페를 론칭하게 된다면 어떤 이름이 좋을까 생각해 보곤 하는데, 아티초크라는 단어를 보고 첫 번째 카페 이름으로 가장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했다. 선인장처럼 생긴 구운 아티초크의 식감은 아쉽게도 이름만큼 내 취향은 아니었지만 그런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특별한 날에는 원래 먹어 왔던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즐기러 온 게 아니라 새로운 것들을 접하기 위해 온 목적도 있기에 아티초크라는 신비로운 이름을 가진 식용식물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으로도 먹지만 분위기나 우아한 이름으로도 즐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재밌는 순간이다.

‘블랙 윈터 생트러플을 채 썰어 올린 링귀니’.

트러플 앞에 왜 ‘윈터’라는 말이 붙었을까 궁금증을 유발하는 식재료다. 겨울에 나는 버섯이기 때문일까. 전문가가 아니라 이름의 유래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명사 앞에 ‘윈터’라는 말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크리스마스가 떠오른다. 서빙하는 분이 눈앞에서 생트러플을 채 썰어 뿌려 주는 퍼포먼스를 할 때가 있는데, 이것도 작은 재미다. 나무상자 안 습지에 곱게 쌓인 트러플 덩어리를 확인한 뒤 아낌없이 파스타 위에 윈터 트러플을 채 썰어 올려 주신다. 은빛의 트러플 전용 칼에 동그랗게 썰러 링귀니 위로 흘날려 쌓여 가는 모습은 눈송이가 소복이 쌓이는 것 같기도 하다. 이미 음식 값에 다 포함된 식재료이고, 서비스이지만 뭔가 극진한 대접을 받는 느낌에 또 오고 싶다는 마음이 든다.

메인요리의 곁들임에 주로 사용되는 구운 아티초크나 윈터 트러플과 같이 이름이 예쁜 식재료들은 맛을 넘어 이미 메뉴판에 인쇄된 단어의 느낌만으로 충분히 고급스럽고 재밌는 식감을 느끼게 해 준다. 어쩌면 메뉴판의 단어들을 눈으로 음미하는 것에서부터 이미 식사는 시작된다.

관계에서 경계, 지켜야 할 선과 넘어야 할 선

<線>

교수실에서

김희곤
국립공주대학교
인문학 교수



“너는 다 줬다고 하는데, 나는 제대로 받은 것이 없단 말이야!” 상대의 눈에 번갯불이 번뜩인다. 순간 머릿속 퓨즈가 나가며 생각회로의 작동이 멈춘다. 눈앞이 아득해지고 이내 사방이 깜깜하다. 아! 나는 너를 배려하면서도 또 할 말은 하는 좋은 파트너가 되고 싶은데, 우린 안 되는 거야? 채 말이 돼 밖으로 나오지 못한 독백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입안은 말라 ‘꿀꺽’ 침 삼키는 소리만이 귓전을 울리며 정적을 메운다. 둘 사이를 그어 놓은 돌아올 수 없는 경계가 만들어지는 순간이다.

대체 우리 생각은 왜 다른 것일까?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선(線)을 넘는 말을 했을 때 더 상처받기 쉽고 오래간다. 같은 공간에서 함께해야 할 대상일수록 그렇다. 누군가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또 경험하고 있을 끔찍한 상황이다. 관계를 이해하는 필수용어로서 지켜야 할 선과 또 넘어야 할 선이 삶의 곳곳에 영긴 실타래처럼 우리를 휘감고 있다. 어느 정도가 지켜야 할 선이며, 또 넘어야 할 선일까? ‘그 선을 넘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관계와 미래를 정하는 방향타가 되기에 늘 숨죽이며 아슬아슬한 경계에 우릴 멈춰 서게 한다.

잘 알지 못하는 나의 내면을 엿보는 일은 두려움과 궁금증이 버무려진 호

기심이다. 나는 의도와 관계없이, 때론 ‘별생각 없음’으로 의도된 (습관이나 버릇) ‘관계의 선’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일까? 오늘 몇 번이나 ‘지켜야 할 선과 또 넘어야 할 선’을 무사히 잘 통과했는지 설문지의 힘에 기대 나를 찬찬히 들여다본다. 아뵘싸, 테스트 결과의 총점이 16점 이하가 돼야 관계의 ‘선’을 비교적 민감하게 인식하는 편에 속하는데 나의 선 넘기 총점은 21점이다. 관계의 아슬아슬한 선 타기 경계에 있는 것이다. 선을 지키는 게 반이라면, 선을 넘는 것도 반이라는 얘기다.

선을 지키거나 선을 넘는 말과 행동은 상대가 나를 보는 거울이다. 따라서 지금 듣는 말은 상대방에게 비친 내 모습이다. 이는 말이 상대의 귀에 들리는 나의 다른 표정인 까닭이다.

그렇다. 모든 관계의 시작점은 ‘자신과 타자의 경계를 넘나드는’ 관점에서 비롯되며, 관계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삶의 모습’이 결정된다. 관계에서 경계(線)는 매우 섬세하고 때론 치명적이다. 사람의 속성은 데

이비드 흠이 간파했듯이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는 데 이성을 작동시킬 뿐이다. 행동은 이성애 의해 결정되는 게 아니라 정념이란 감정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계의 원점은 상대와 나 자신의 경계를 이해하고, 서로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의 진정한 의미를 알 때 비로소 선 놀림이 자유롭다. 관계에서 경계는 허용이 가능한 행동과 관계에 없는 행동을 정의하는 보이지 않는 선이다. 그래서 추상미술향은 선을 자유롭게 구상해 면과 입체로 승화시킨 20세기의 발명이다.

세잔은 선의 한계를 넘어 면과 공간 구성의 색을 통해 자연이 감추고 있는 내적 가능성을 표현하며, 회화가 더 이상 자연을 재현하는 한계에 갇히지 않도록 했다. 그는 ‘경계’를 넘어 ‘관계’로 이어지는 곳에 새로운 발견이 있음을 안 것이다. 새롭게 발견한 세계는 새롭게 인지한 이들의 것이고, 이는 자유이며 권리다.

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선을 제대로 넘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때가 되면 지켜야 할 선과 넘어야 할 선을 명확하게 아는 ‘자유로운 나’를 발견할 수 있음을 세잔은 나직이 전한다.